

증례Ⅱ - 2

Double guidance concept을 이용한 ovate pontic 수복증례와 평가

우경엽, 권공록, 우이형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상악 전치부 결손의 수복 증례는 술자에게 매우 심미적인 도전일 수 있다. 이 부위에서의 수복방법으로는 임플란트 보철, conventional FPD, resin-bonded FPD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치아 자체의 심미 뿐만 아니라 치아와 주위 연조직 간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철치료는 자연치아와 그것을 지지하는 연조직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철치료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치조제의 적절한 성형과 동시에 보철치료가 시행되어야만 보다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심미적 결과를 위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 ovate pontic을 이용한 FPD는 심미적이고 편안함을 주며 음식물의 압입을 방지 할 수 있고 넓고 볼록한 형태는 floss로 청소하기가 용이하며 부피가 커서 강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ovate pontic을 하려는 많은 환자에게 있어서 치아 상실 부위에 연조직과 경조직의 흡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ridge augmentation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료를 계획 시에 double guidance concept은 ovate pontic의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1997년 Touati B.에 의해 소개된 double guidance concept은 implant 치료 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최종 보철물이 implant의 식립 위치와 외과적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임시 보철물이 연조직의 치유와 치간 유

두 재생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ovate pontic을 이용한 FPD 수복 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더 좋은 심미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상악 중절치 상실로 conventional FPD를 장착하였으나 심미적, 기능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환자에게 ridge augmentation을 시행한 후 ovate pontic을 이용한 FPD로 수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단 모형에서 치아와 연조직 부분의 wax-up을 시행하였고 이 모형으로 stent를 제작하여 ridge augmentation 시에 guide가 되도록 하였다. 수술 후 2개월의 치유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진단 모형을 제작하여 모형 상에서 pontic base에 해당하는 부위를 삭제하였으며 삭제 범위를 구강내로 정확히 옮기기 위한 stent를 제작하였다. 다시 wax-up을 시행한 후 ovate pontic 형태의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구강 내에서 stent를 장착하고 정확한 범위의 electrosurgery를 시행한 후 임시치아를 장착하여 임시치아의 외형대로 연조직이 치유되도록 유도하였다. 연조직의 형태를 임시치아로 조금씩 수정하면서 인접치의 연조직과 유사하게 되도록 하였다. 연조직의 형태와 치유가 적절히 되었을 때 최종인상을 채득하여 metal coping을 제작 후 구강내로 시적 한 다음 연조직의 형태를 다시 채득하여서 정확한 형태의 pontic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을 때 환자는 심미와 기능면에서 모두 만족하였고 지속적인 관찰에도 연조직의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